

# Computer Graphics

---

**Prof. Jibum Kim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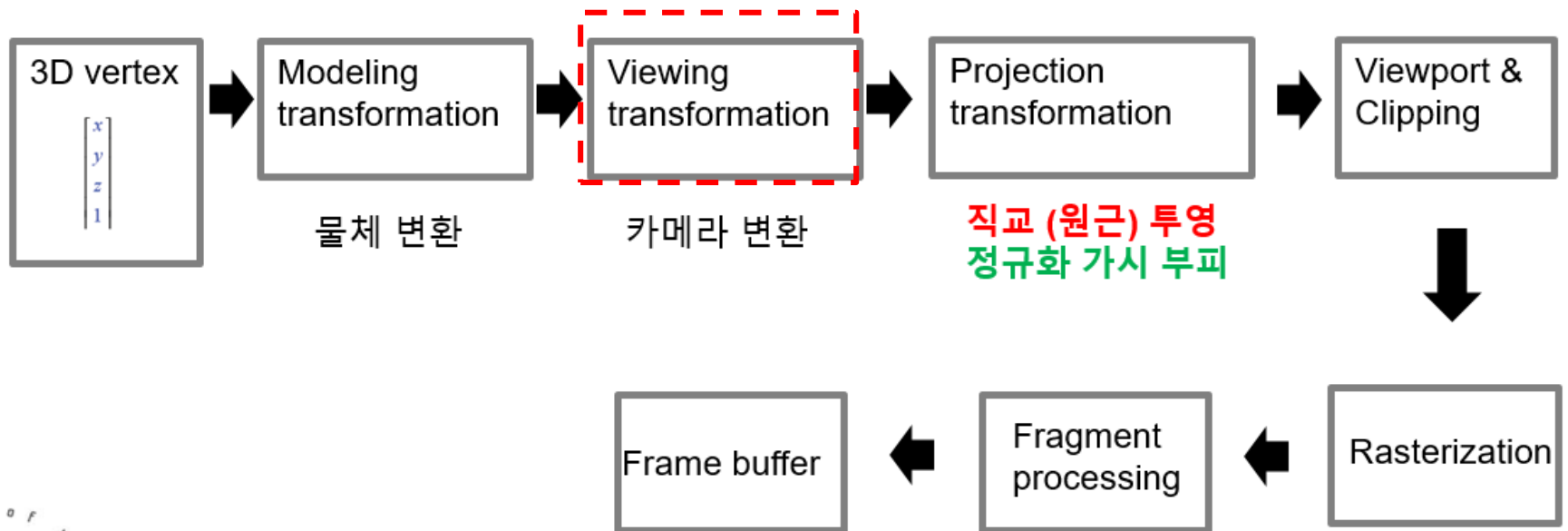
**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& Engineering**

**Incheon National University**

---

- Viewing transformation: `gluLookAt()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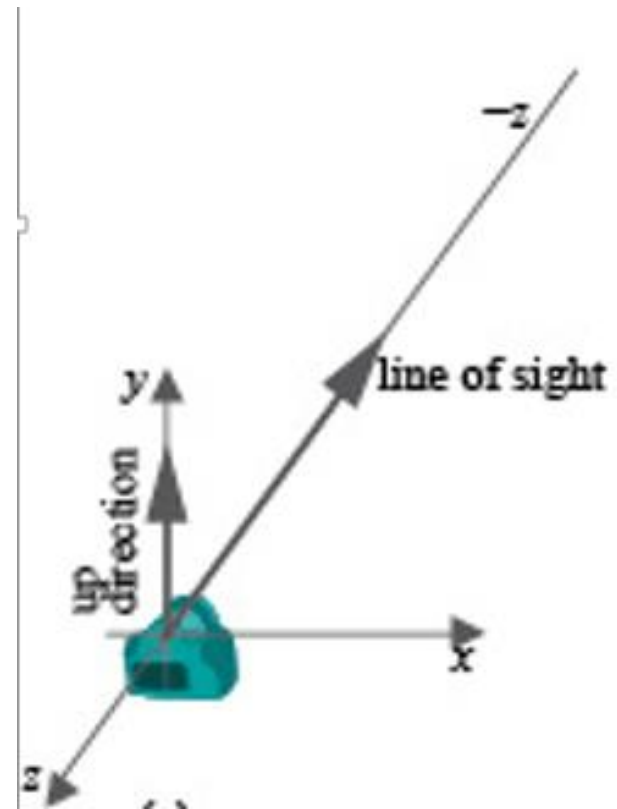
## ■ Graphics pipeline (OpenGL 2.x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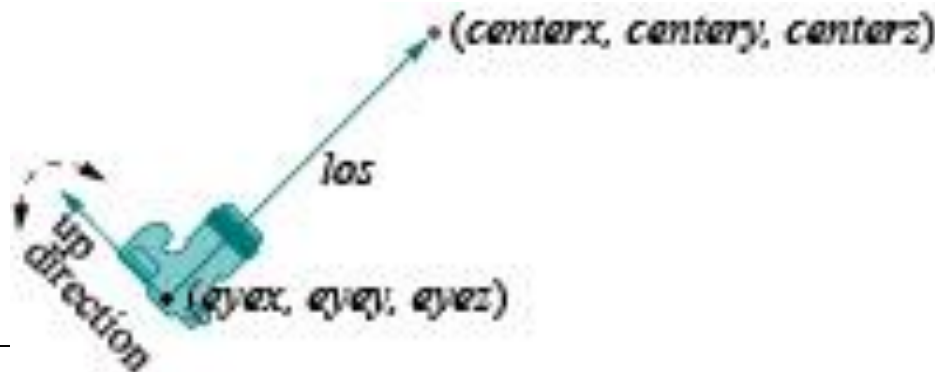
- 
- 앞에서는 물체를 변환시키는 **object transformation**에 대해서 살펴보았다
  - 이번에는 물체가 아닌 카메라의 위치를 변환시키는 **viewing transformation**에 대해서 알아보자

- Viewing Frustum 을 사용시의 기본적인 가상의 카메라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origin (0,0,0)에 위치하고 음의 z축 방향 (-z축 방향)을 바라본다고 가정하였다
- 카메라가 바라 보는 방향 (즉, -z축 방향)을 **line of sight (LOS)**라 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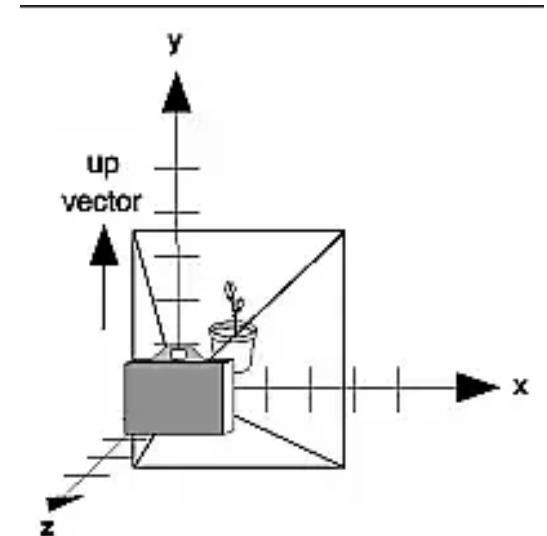
- Default Camera location and LOS in frustum
- 카메라 위치 (0,0,0)
- 방향 (LOS): -z direction
- 카메라 위쪽: +y direction



- OpenGL에서는 카메라의 위치, 보는 방향등을 바꿀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gluLookAt 함수이다
- **gluLookAt(eyex, eyey, eyez, centerx, centery, centerz, upx, upy, upz)**
- OpenGL camera location: (eyex, eyey, eyez)
- OpenGL camera가 바라보는점 (centerx, centery, centerz)
- OpenGL camera의 up direction: (upx, upy, upz)
- 밑의 그림에서 LOS ? 카메라 위치에서 바라보는 점 연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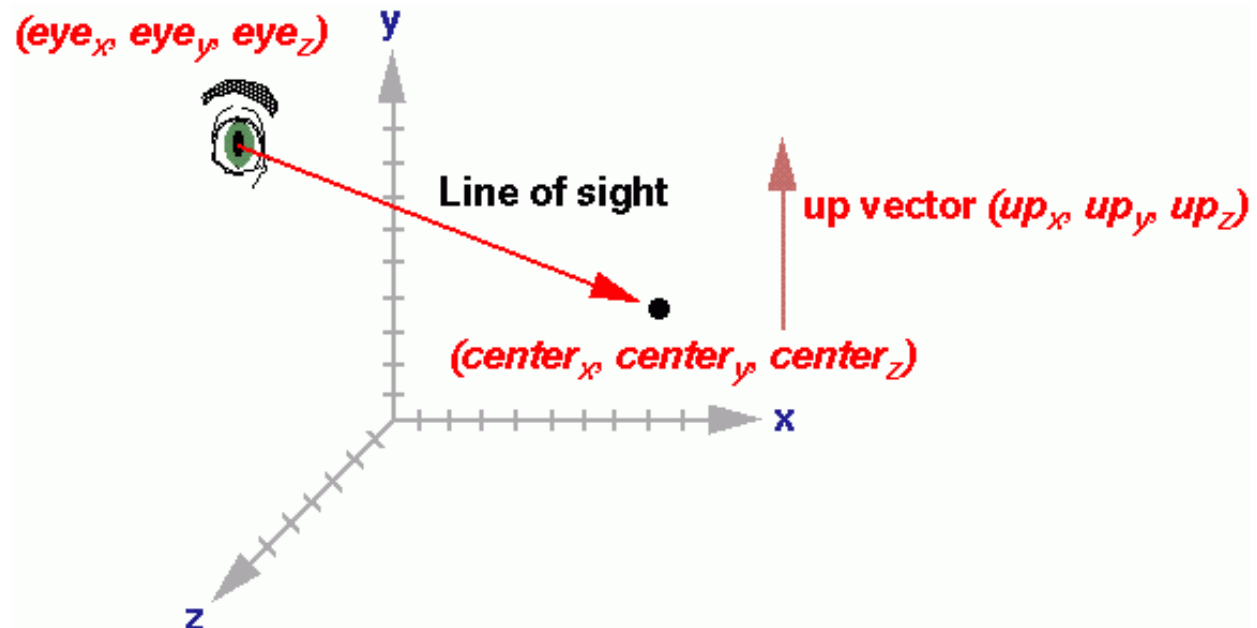


- 예: `gluLookAt(0,0,15,0,0,0, 0,1,0);`
- 카메라 위치?
- 보는 위치?
- 카메라의 위쪽 (up)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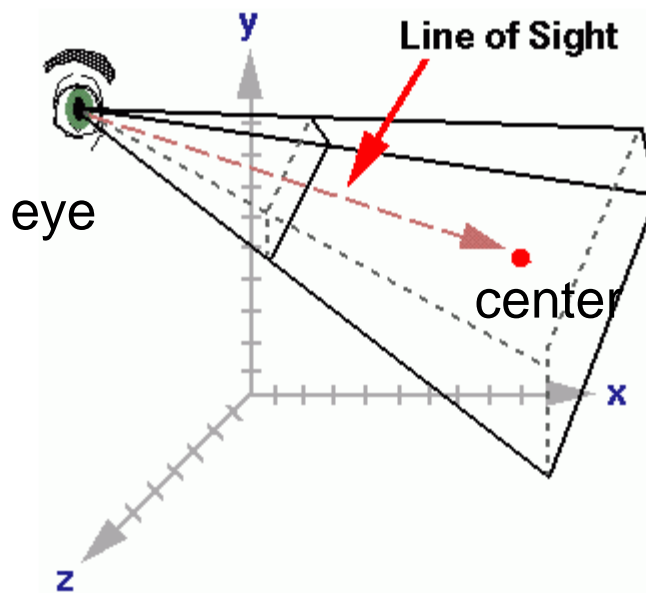


- `gluLookAt(eyex, eyey, eyez, centerx, centery, centerz, upx, upy, upz)`
- Line of sight:  $(eyex, eyey, eyez)$ 와  $(centerx, centery, centerz)$ 를 연결한 직선



- Viewing transformation시의 viewing frustum
- **The frustum is always aligned down the line of sight (LOS)**  
**(frustum은 LOS에 맞춰짐) Why?**
- 사실 viewing frustum이라는 것은 가상의 절두체로서 물체를 원근감 있게 표현하려는데 사용된다. 카메라가 center를 바라보는 방향이 LOS 이므로 frustum도 LOS쪽으로 이동해야 한다
- (glFrustum으로 만든 것이 LOS로 이동)
- gluLookAt()함수를 사용해도 frustum의 모양은 변하지 않고 LOS에 따라 viewing frustum의 위치와 각도만 달라진다
- (알아서 frustum이 translate됨)

- Viewing frustum stays connected to the eye (camera)
- The frustum is always aligned down the line of sight
- gluLookAt() 함수가 없을때의 viewing frustum이 LOS 방향으로 이동 (단, 원래 카메라와 viewing face사이의 거리는 동일)



- 
- `gluLookAt()` 함수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자는 처음 6개의 인자이다
  - 즉, camera의 위치 (`eyex, eyey, eyez`)와
  - 쳐다보는 점 (`centerx, centery, centerz`)을 의미
  - 원래 LOS와 up 방향은 수직이어야 하지만 정확한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마지막 3개 인자 (`upx, upy, upz`)는 대부분 (0,1,0)으로 놓고 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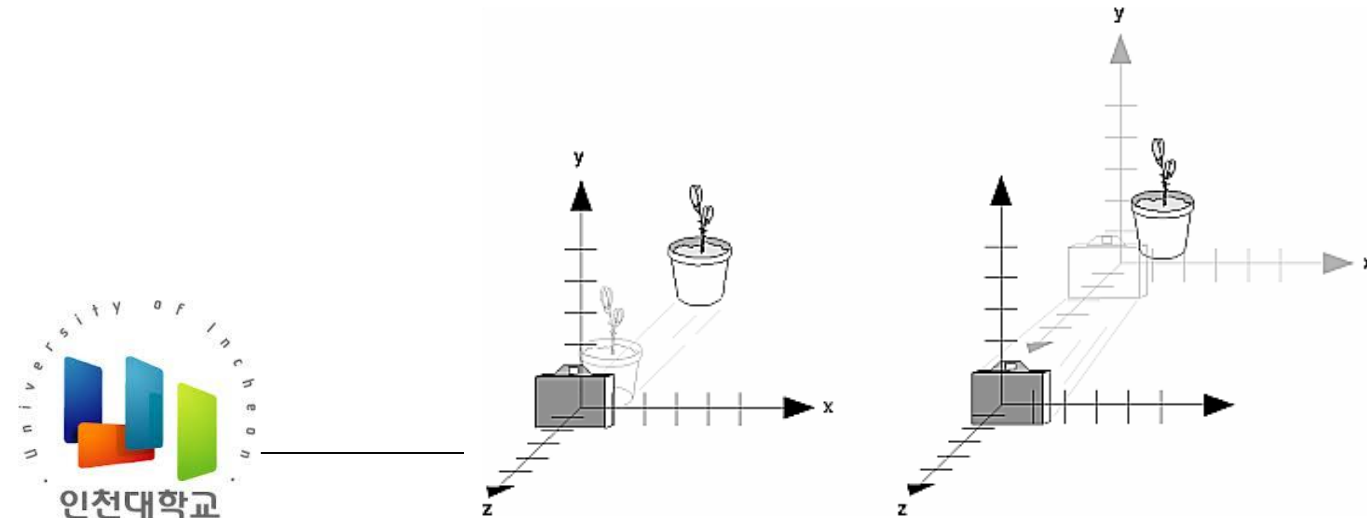
- glutObject 들은 최초에 중심이 (0,0,0)에 위치함 Frustum사용시 glTranslatef(0,0,-15)와 같이 물체를 이동시켜서 viewing frustum안으로 물체를 이동시켰다
- Q) 이때 카메라와 object 중심 사이의 거리는?
- 이번엔 glutObject를 (0,0,0)에 고정하고 gluLookAt 함수로 카메라의 위치를 이동시켜 보자
- gluLookAt(0,0,15,0,0,0, 0,1,0);
- 카메라를 z축(+)로 15만큼이동. 물체는 (0,0,0)에 고정
- Q) 이때 카메라와 object 중심 사이의 거리는?

1. glutobject를 보기 위해 그 물체를 z축으로 -15이동시켰다 (왼쪽 그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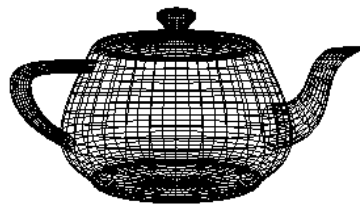
- `glTranslatef(0,0,-15)` => 카메라와 물체 사이의 거리=

2. 물체는 움직이지 않고 카메라를 z축으로 +15만큼 이동시켰다

- (오른쪽 그림) `gluLookAt(0,0,15,0,0,0, 0,1,0);`
- 카메라와 물체 사이의 거리=



- 
- 예) `glutWireTeapot(5.0);` 을 frustum을 이용하여
  - 사용시 이 두 가지가 실행 결과가 동일한지 확인해 보자
  - 물체 이동 : `glTranslatef(0.0, 0.0, -15.0);`
  - 카메라 이동 : `gluLookAt(0,0,15,0,0,0, 0,1,0);`



---

```
■ #include <GL/glut.h>

■ void Init()
■ {
■     glClearColor(1.0, 1.0, 1.0, 0.0);
■     glColor3f(0.0, 0.0, 0.0);
■     glMatrixMode(GL_PROJECTION);
■     glLoadIdentity();
■     glFrustum(-5.0, 5.0, -5.0, 5.0, 5.0, 100.0);
■ }

■ void Display(){
■     glClear(GL_COLOR_BUFFER_BIT);
■     glMatrixMode(GL_MODELVIEW);
■     glLoadIdentity();
■     glTranslatef(0, 0, -15);
■     glutWireTeapot(5.0);
■     glFlush();
■ }

■ int main(){
■     glutInitWindowSize(400,400);
■     glutInitWindowPosition(100,100);
■     glutCreateWindow("OpenGL Hello World!");
■     Init();
■     glutDisplayFunc(Display);
■     glutMainLoop();
■     return 0;
```



- 
- **glTranslatef(0, 0, -15);**
  - **를 comment out (주석 처리) 하고**
  - **gluLookAt(0,0,15,0,0,0, 0,1,0);**

- 
- **gluLookAt(0,0,15,0,0,0, 0,1,0);**
  - 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보자 어떤 결과를 예상하는가? 왜 그런가?
  - **gluLookAt(0,0,15,0,0,-10, 0,1,0);**

- 
- 실제 `gluLookAt()`; 함수는 3D 물체를 입체 있게 보여주는데 유용하다
  - 다음의 예제를 살펴보자
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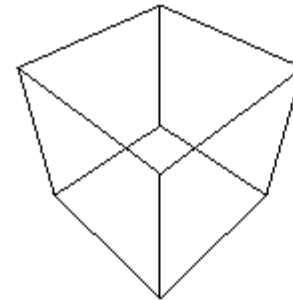
■ #include <GL/glut.h>

■ void Init()
■ {
■     glClearColor(1.0, 1.0, 1.0, 0.0);
■     glColor3f(0.0, 0.0, 0.0);
■     glMatrixMode(GL_PROJECTION);
■     glLoadIdentity();
■     glFrustum(-5.0, 5.0, -5.0, 5.0, 5.0, 100.0);
■ }

■ void Display(){
■     glClear(GL_COLOR_BUFFER_BIT);
■     glMatrixMode(GL_MODELVIEW);
■     glLoadIdentity();
■     gluLookAt(6,8,6,0,0,0, 0,1,0);
■     glutWireCube(5.0);
■     glFlush();
■ }

■ int main(){
■     glutInitWindowSize(400,400);
■     glutInitWindowPosition(100,100);
■     glutCreateWindow("OpenGL Hello World!");
■     Init();
■     glutDisplayFunc(Display);
■     glutMainLoop();
■     return 0;

```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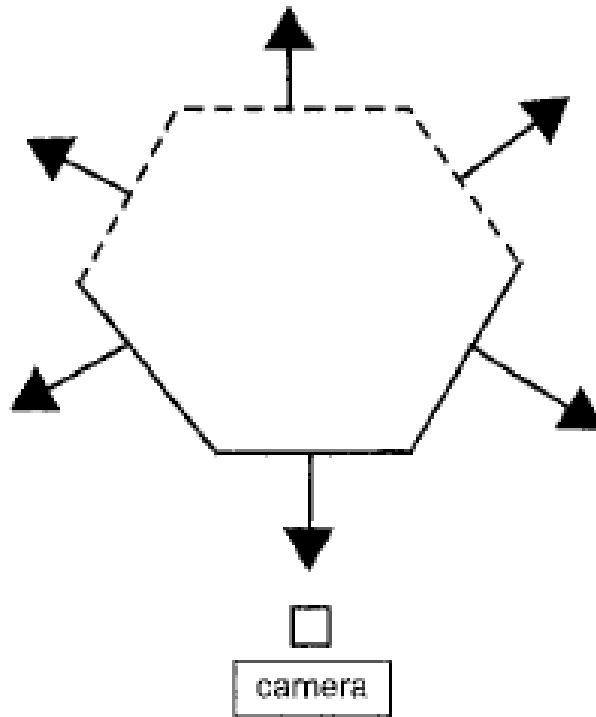
- 
- 대부분의 경우 `gluLookAt()` 함수를 사용시 카메라의 up에 해당하는 마지막 세 인자는  $(0, 1, 0)$ 으로 둔다

---

## ■ Vecto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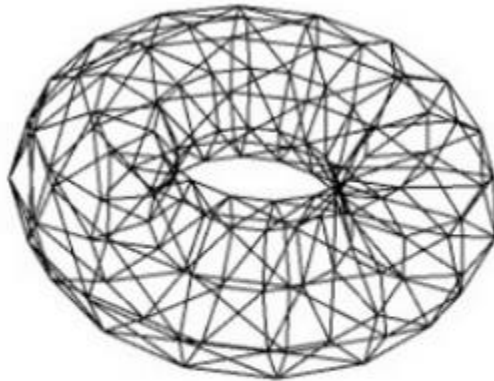
- 
- 벡터 (vector)
  - (Euclidean) Vector? a geometric object that has both a magnitude (크기) and direction (방향)

- 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벡터가 중요한가?
- 1. Polygon에서 어떠한 면이 camera 위치에 대하여 앞면인지 뒷면 (후면, 이면)인지 따질 때 벡터를 사용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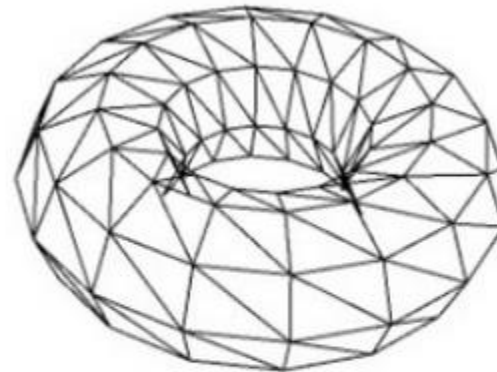




- 이를 통해서 **후면 제거 (backface culling)**를 수행 한다
- 아래와 같이 후면 제거를 하면 어떠한 점이 좋을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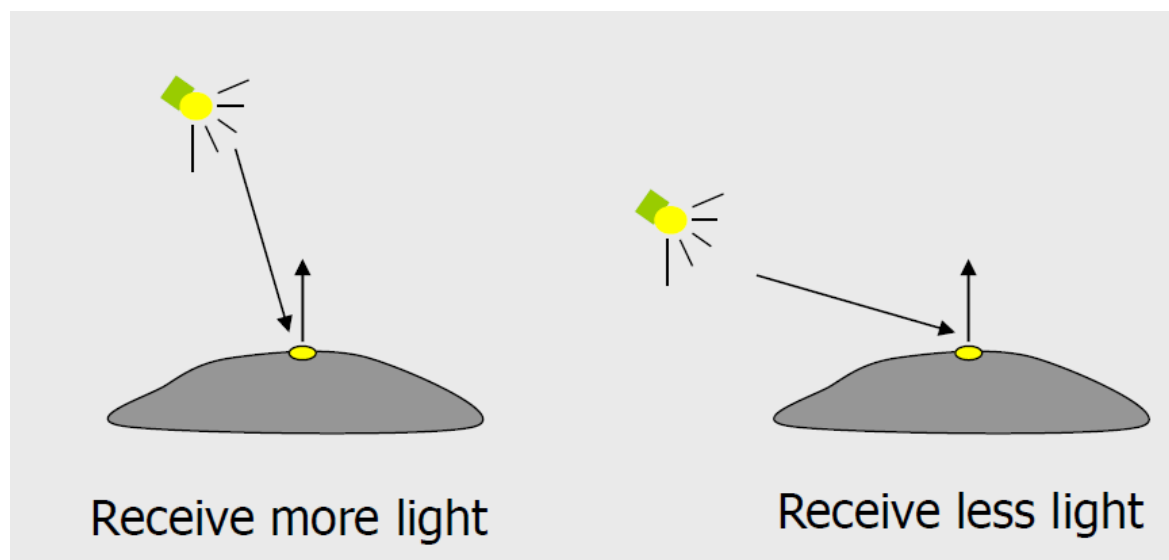


Torus drawn in wire-frame  
without back face cullin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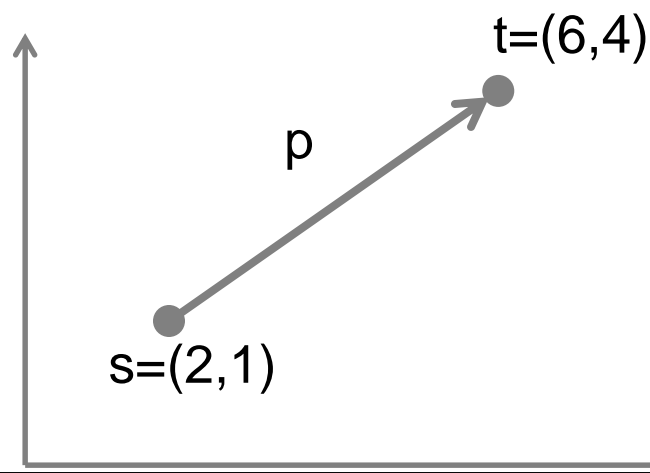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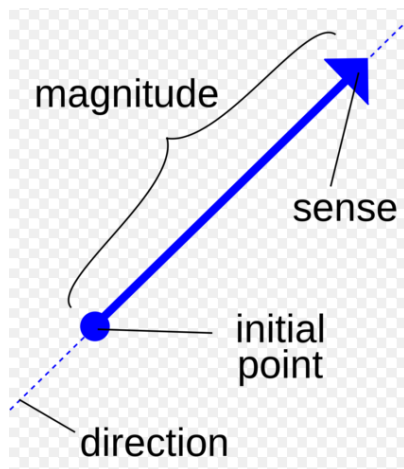


Torus drawn in wire-frame  
**with** back face culling

- 2. 조명 (lighting) 처리시 필수적이다
- 광원 (빛이 나오는 곳)으로의 빛이 어느 정도 반사되는지 계산할 때 벡터를 사용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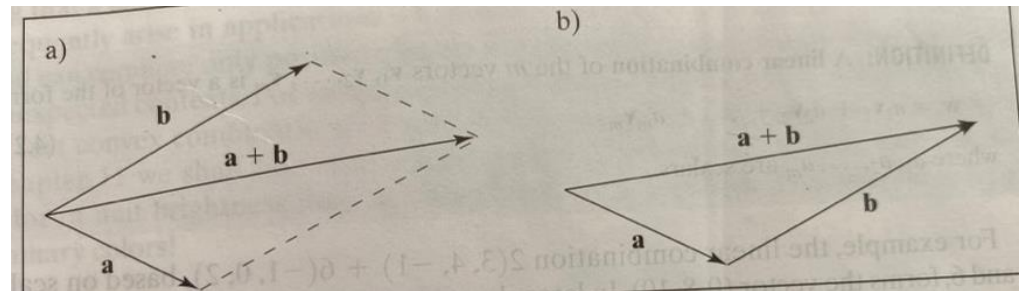


- **Vector? a geometric object that has both a magnitude (크기) and direction (방향)**
- **Magnitude: distance between two points (initial point=>end point)**
- 예)  $p$ : vector from point  $s$  to point  $t$ :  $p=t-s=(6,4)-(2,1)=(4,3)$
- **Magnitude** $=\sqrt{4^2 + 3^2} = 5$
- **Vector는 보통 bold (강조) 혹은 italic,  $p$ , 혹은 화살표 표시  $\vec{p}$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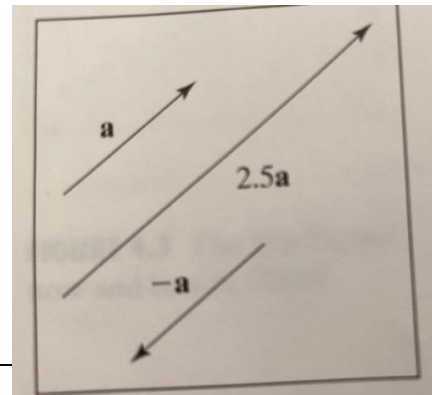
- **Vector의 표기**
- n-차원 벡터는 n-tuple로 표기
- $w=(w_1, w_2, \dots, w_n)$

- **Vector의 합**
- $a=(2, 5, 6)$  and  $b=(-2, 7, 1)$
- $a+b=(0, 12, 7)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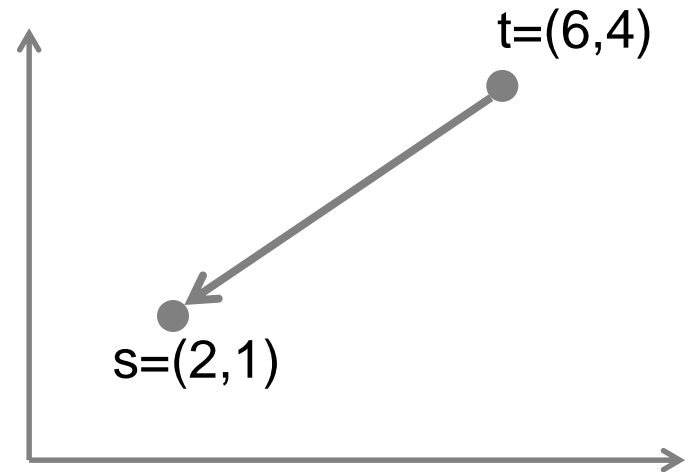


- **Vector와 scalar와의 곱**

$$6a=(12, 30, 36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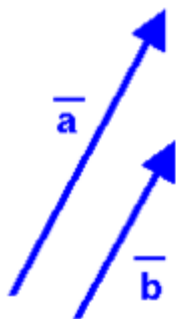


- **Vector has a direction**
- 예) vector from point t to point s:  $q=s-t=(2,1)-(6,4)=(-4,-3)$
- Magnitude= $\sqrt{(2-6)^2+(1-4)^2}=5$
- 즉, 방향이 바뀌면 (반대 방향이 되면) 부호가 바뀐다
- s->t로 가는 vector:  $p=(4,3)$ ,
- t->s로 가는 vector:  $q=(-4,-3)$
- $p \neq q$  (opposite direction)
- Vector 표기: italic, 진하게, 화살표표시



- Vector의 특징
- 두 vector는 크기 (magnitude) 와 방향 (direction) 이 모두 같아야 같은 vector이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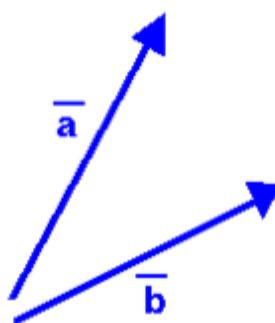
Example #1



Vector a and Vector b  
have same direction  
but different magnitude.

$$\vec{a} \neq \vec{b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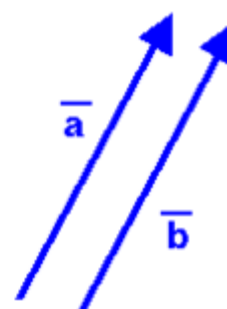
Example #2



Vector a and Vector b  
have same magnitude  
but different direction.

$$\vec{a} \neq \vec{b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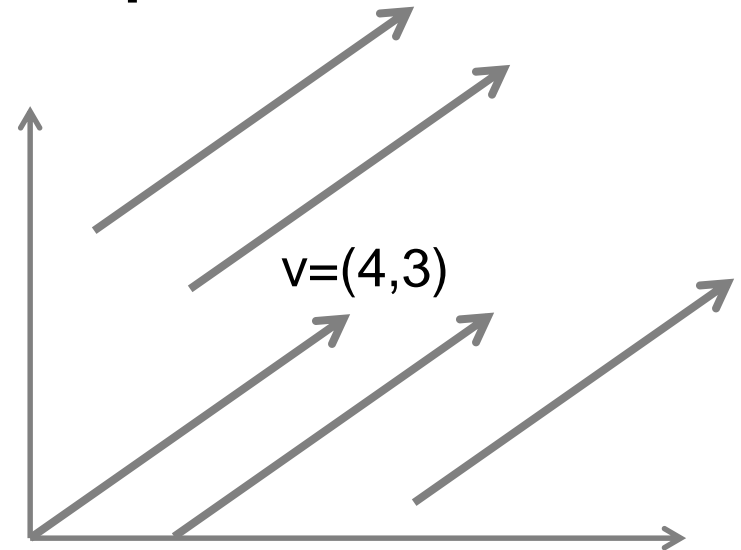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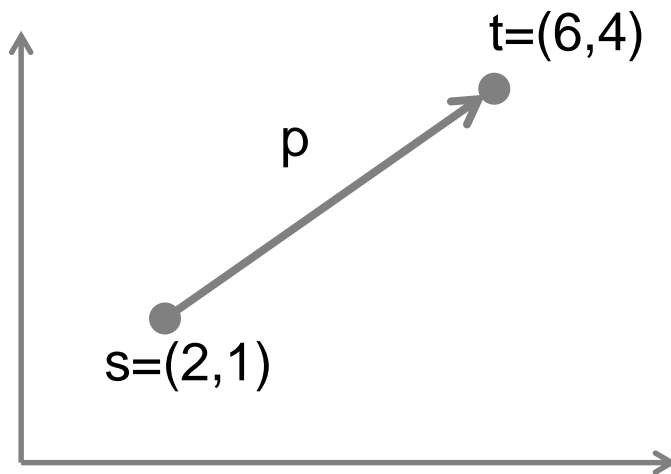
Example #3



Vector a and Vector b  
have same direction  
and same magnitude.

$$\vec{a} = \vec{b}$$

- Vector  $p$  from  $s$  to  $t$  : left
- These vectors are same as vector  $p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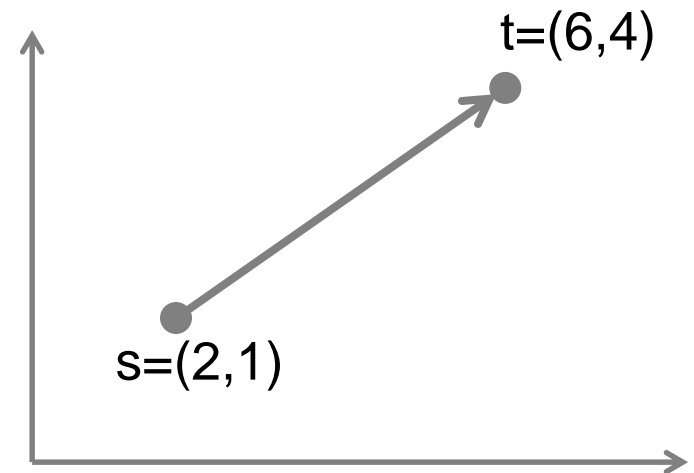


- Normalized vector (정규화 벡터)
- In general, we use a normalized vector
- Vector with a magnitude 1 (크기가 1인 vector)
- 3차원 vector  $p(x, y, z)$ 의 magnitude,  $|p| = \sqrt{x^2 + y^2 + z^2}$
- normalized vector:  $p'$

$$\begin{aligned} p' &= \left( \frac{x}{|p|}, \frac{y}{|p|}, \frac{z}{|p|} \right) \\ &= \left( \frac{x}{\sqrt{x^2 + y^2 + z^2}}, \frac{y}{\sqrt{x^2 + y^2 + z^2}}, \frac{z}{\sqrt{x^2 + y^2 + z^2}} \right) \end{aligned}$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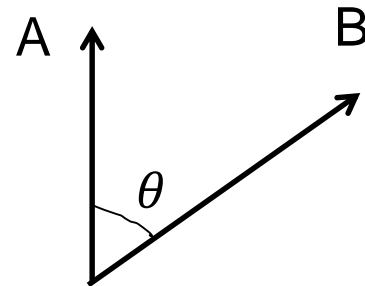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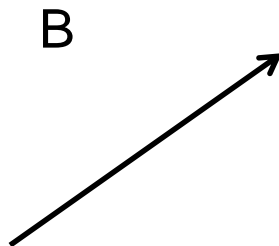
- Ex) Normalized vector from point s to point t
- $\mathbf{p} = \mathbf{t} - \mathbf{s} = (6, 4) - (2, 1) = (4, 3)$
- $|\mathbf{p}| = \sqrt{4^2 + 3^2} = 5$
- $\mathbf{p}' = \frac{\mathbf{p}}{|\mathbf{p}|} = \left(\frac{4}{5}, \frac{3}{5}\right)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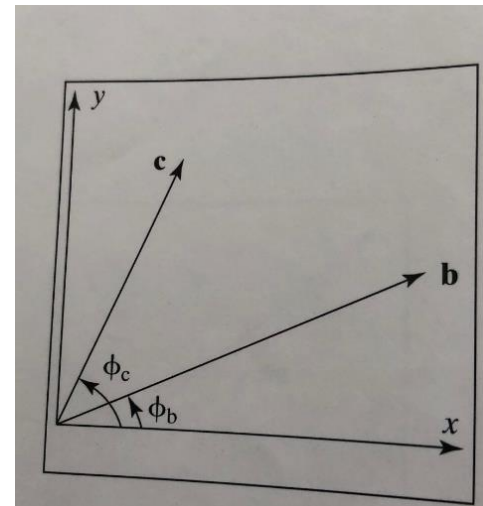
- 
- 예) Normalized vector from point A (1, 3, 2) to point B(2,4,1)
  - $P=B-A =$
  - $P$ 의 magnitude=
  - $p'=$

- 
- Dot product (Inner product) of vectors
  - 두 벡터의 내적

- 두 vector  $A=(x_1, y_1, z_1)$ ,  $B=(x_2, y_2, z_2)$  가 있다고 하면 두 벡터의 내적 (inner product),  $A \cdot B$
- $A \cdot B$  (벡터 A,B 사이의 내적) $=x_1*x_2+y_1*y_2+z_1*z_2$
- 중요: 두 벡터 내적의 결과는 scalar 이다 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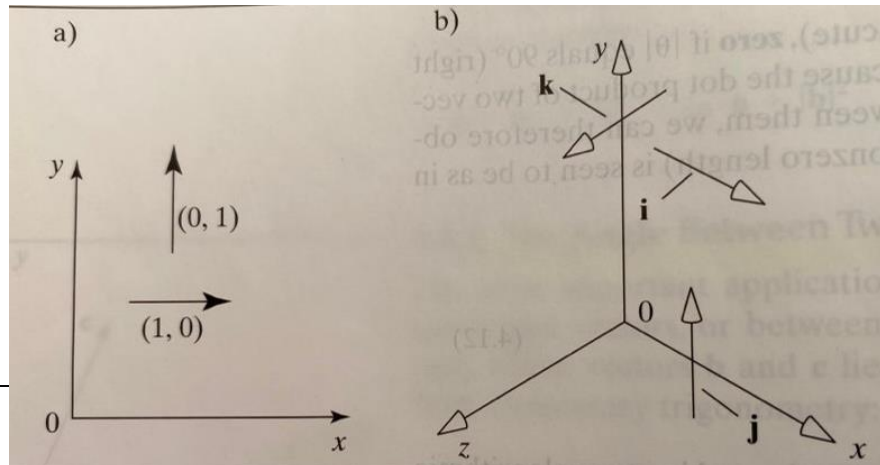
-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,  $\theta$ , 구하기
- $b = (|b|\cos \varphi_b, |b|\sin \varphi_b)$
- $c = (|c|\cos \varphi_c, |c|\sin \varphi_c)$
- $b \cdot c = |b||c|\cos \varphi_b \cos \varphi_c + |b||c|\sin \varphi_b \sin \varphi_c$
- $b \cdot c = |b||c|\cos(\varphi_c - \varphi_b)$
- $b \cdot c = |b||c|\cos(\theta)$
- $\cos(\theta) = \frac{b \cdot c}{|b||c|}$



- 
- 다음 두 벡터  $b=(3,4)$ 와  $c=(5,2)$ 사이의 각도를 계산해 보자

- 두 벡터 사이의 내적값을 통해 두 벡터의 사이각에 대해서 알 수 있다
- 두 벡터 A, B의 사이각:  $\theta = \cos^{-1}\left(\frac{A \cdot B}{|A||B|}\right)$ ,  $\cos(\theta) = \frac{A \cdot B}{|A||B|}$
- Properties of inner product when two vectors are given
  - 1.  $A \cdot B = 0$ ,  $\theta = 90^\circ$
  - 2.  $A \cdot B > 0$ ,  $0 < \theta < 90^\circ$  (예각)
  - 3.  $A \cdot B < 0$ ,  $\theta > 90^\circ$  (둔각)

- Vectors  $b$  and  $c$  are **perpendicular if  $b \cdot c = 0$**
- Other names for perpendicular are orthogonal and normal
- **Standard unit vector**
- The standard unit vectors in 3D have components:
- $i=(1, 0, 0)$ ,  $j=(0, 1, 0)$ ,  $k=(0, 0, 1)$





---

## ■ 두 벡터의 외적 (cross product)

- 벡터의 외적은 기호 (x, cross product)로 표시되고
- 아래와 같은 연산할 수 있다. 벡터의 외적은 결과적으로 다시 **벡터**가 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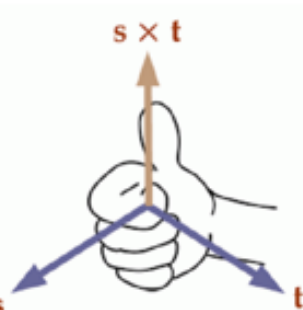
S: (sx, sy, sz), t: (tx, ty, tz)

sxt=(sy\*tz-sz\*ty, -sx\*tz+sz\*tx, sx\*ty-sy\*tx)

- 행렬식 (determinant) 이용하면 기억하기 쉬움

- 
- 예: 다음과 같이 두 벡터  $a=(3, 0, 2)$ 와 벡터  $b=(4, 1, 8)$ 가 주어져 있을 때
  - $a \times b$  ,  $b \times a$ 를 연산해 보자

- 벡터 외적 (cross product)의  $s \times t$ , 의 특징
- 1. 벡터  $s$ 와 벡터  $t$ 의 외적 결과도  $s \times t$  도 벡터이다
- 2. 벡터  $s \times t$  는 벡터  $s$ , 벡터  $t$ 와 perpendicular (직교)하다
- 이를 이용하여 벡터 외적을 법선 벡터 계산시 사용
- 3. 벡터  $s \times t$  의 방향은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면 첫 벡터  $s$ 로 부터 둘째 벡터인  $t$ 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감싸 쥐었을 때 엄지 손가락의 방향이다 (즉,  $s \times t$  와  $t \times s$  는 크기는 같지만 벡터 방향이 반대이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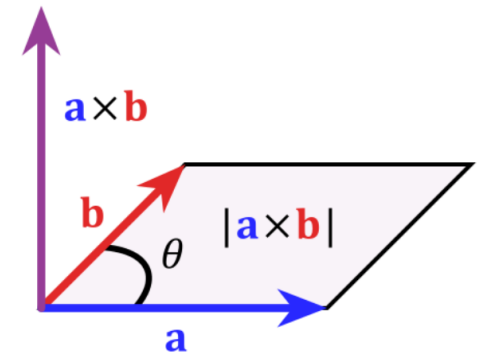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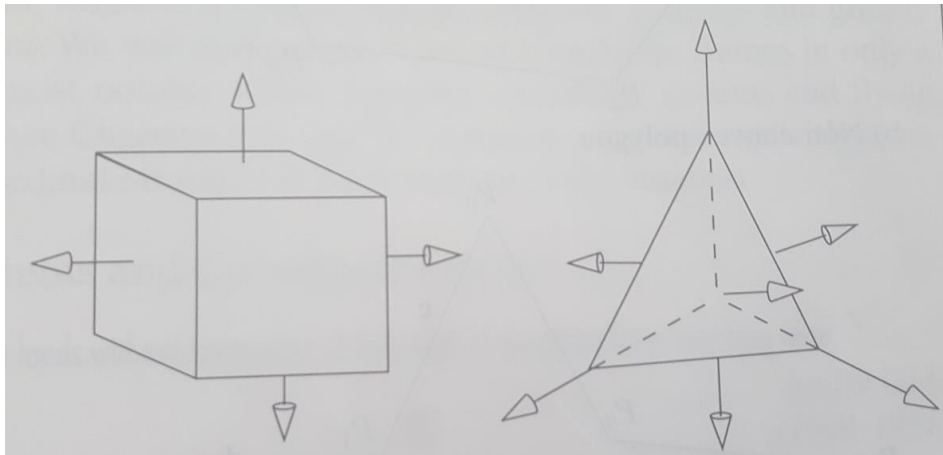


- 
- 예:  $i \times j = k$ , ( $i=(1, 0, 0)$ ,  $j=(0, 1, 0)$ ,  $k=(0, 0, 1)$ ),  $i, j, k$   
(standard unit vector), 오른손 법칙 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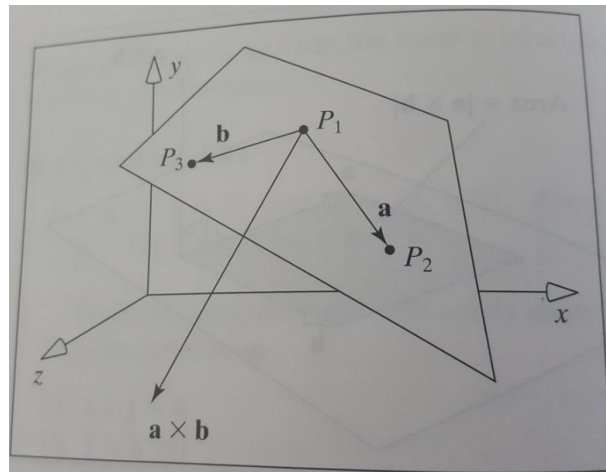
---

## ■ Normal vector (법선 벡터)

- **Normal vector (법선 벡터):** 평면에 수직인 vector
- 법선 벡터는 앞에서 배운 벡터 외적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
- 두 물체에 대하여 각 face (면)에 대하여 normal vector를 표시해 보면



- 평면에 대한 방정식이 아래와 같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
- $ax+by+cz+d=0$
- 법선 벡터 ( $n$ )는  $n=(a, b, c)$ 이다
- 평면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평면에 있는 세 점  $P_1$ ,  $P_2$ ,  $P_3$ 을 찾은 후 두 벡터  $a=P_2-P_1$ ,  $b=P_3-P_1$ 을 구한 후 다음의 연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
- $n=a \times b$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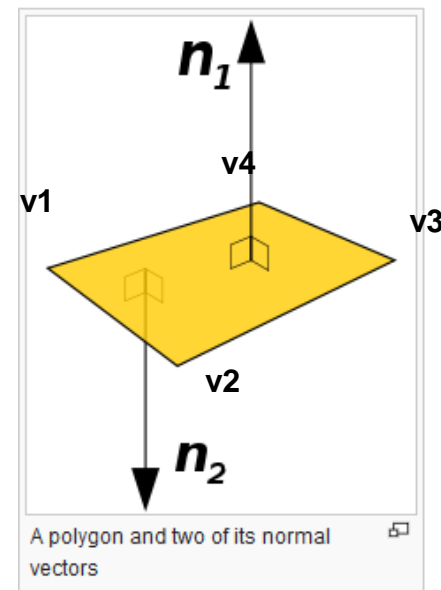
---

**E.g., Find a normal vector to the plane through the points**

**$P1=(1, 0, 2)$ ,  $P2=(2, 3, 0)$ ,  $P3=(1, 2, 4)$**

**$a=(1, 3, -2)$ ,  $b=(0, 2, 2)$ ,  $n$  (normal vector)**

- OpenGL에서는 vertex를 명시하는 순서에 따라서 법선 벡터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
-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법선 벡터가 중요한 이유는 어떤 면이 공간상에서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면 방향 (orientation)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
-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면
- Polygon 정의 시:  $v_1, v_2, v_3, v_4$  순서로 정의하면  $n_1$  is a normal vector (윗 방향)
- Polygon 정의 시:  $v_1, v_4, v_3, v_2$  순서로 정의하면  $n_2$  is a normal vector (아래 방향)



- closed surface에서의 normal vector는 outward direction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자
- A closed surface could be the surface are of a sphere or a cube

